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기획

AUSG 5기 배지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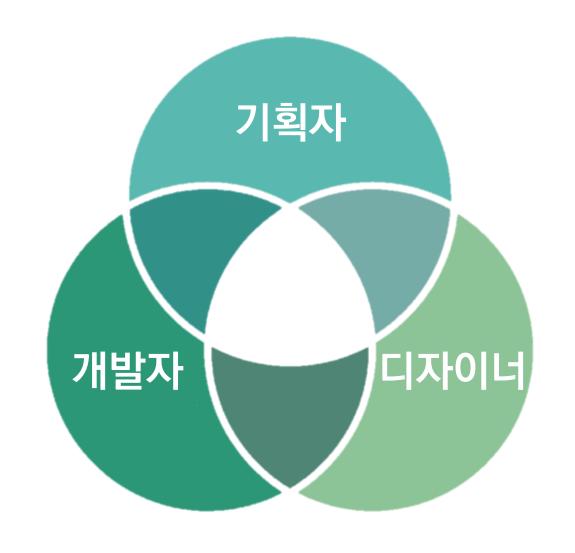


왜 개발자가 기획을 알아야 할까?

기획이란?

1. 사람들의 머리에 더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창조적인 기획

2. 문제해결로서의 기획



각자의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

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기획

'문제해결'로서의 기획

문제해결로서의 기획





새로운 서비스 기획

이 강의를 들으면 좋은 분들

- 1.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
- 2. 나중에 창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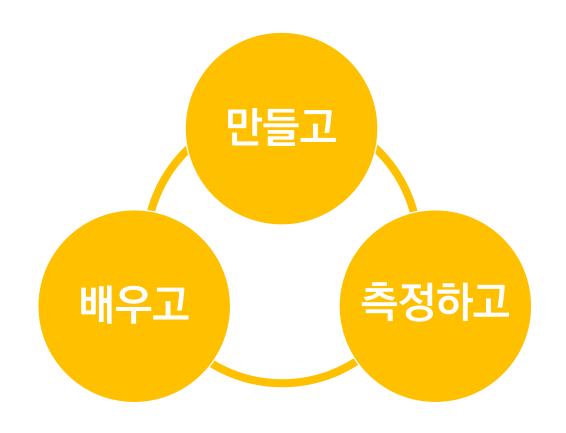
이 강의를 들으면요.

- 1. 문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알게 될 거예요.
- 2. 인터뷰할 때, 어떤 질문을 하고, 어떤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.

'사람들이 원하는 아이템'을 선별할 수 있어요.

1. 린 스타트업과 MVP

린 스타트업



실험과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목표점에 도달하는 경영전략

1. 린 스타트업과 MV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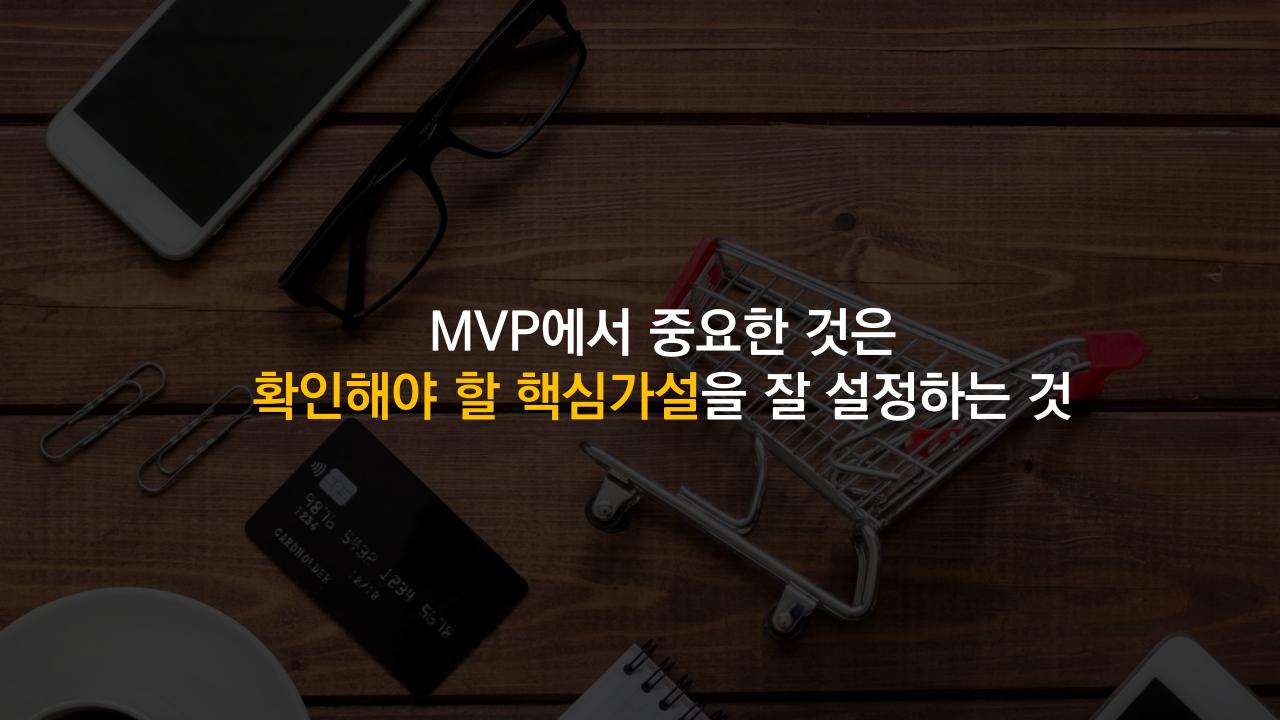


실험과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목표점에 도달하는 경영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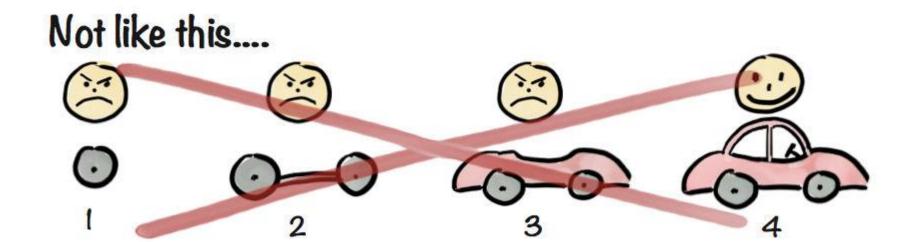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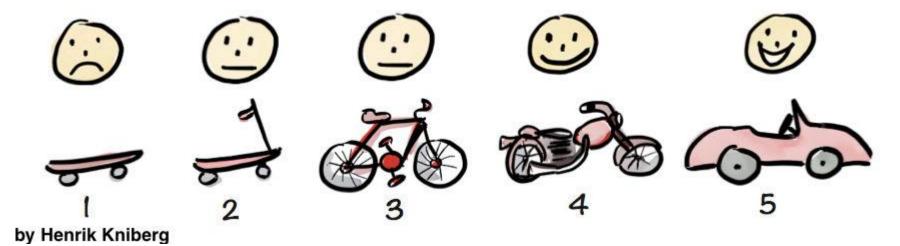




2. MVP를 위한 핵심가설 설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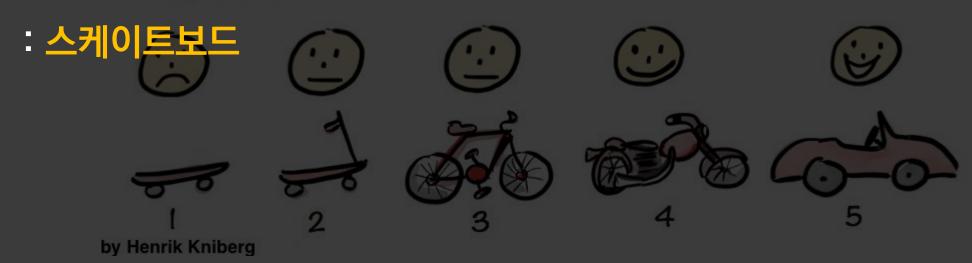
Like this!



2. MVP를 위한 핵심가설 설정

Not like this.... 핵심가설 : 사람들이 걷는 것보다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.

첫 번째 MVP his!



3. 제대로 된 핵심가설을 위한 페인포인트 발굴

아이디어

"~~하면 좋지 않을까?"

"걸어다니기 힘든데 바퀴로 이동을 편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?"

페인 포인트

"~~한 문제를 겪는다."

"사람들은 많이 걸으면 피곤해 한다."
"사람들이 오래 걸으면 속도가 느려진다."
"바쁜 일이 있어도 좀 더 빨리 이동하지 못한다."

4. 페인 포인트와 문제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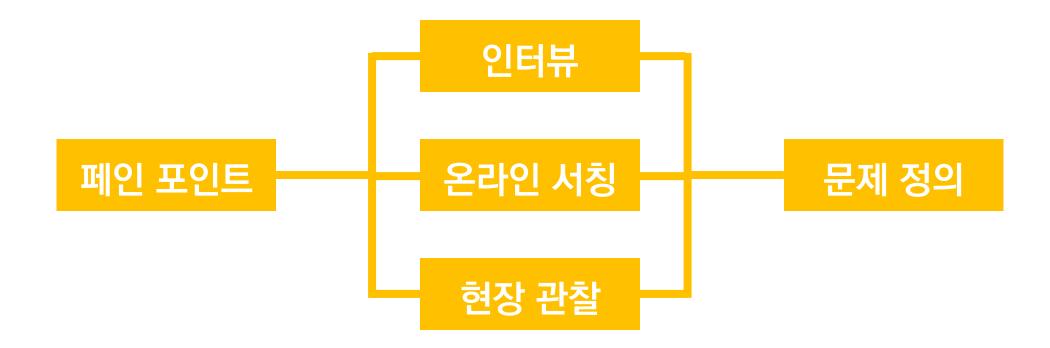
누가 어떤 문제 를 겪는다.

4. 페인 포인트와 문제 정의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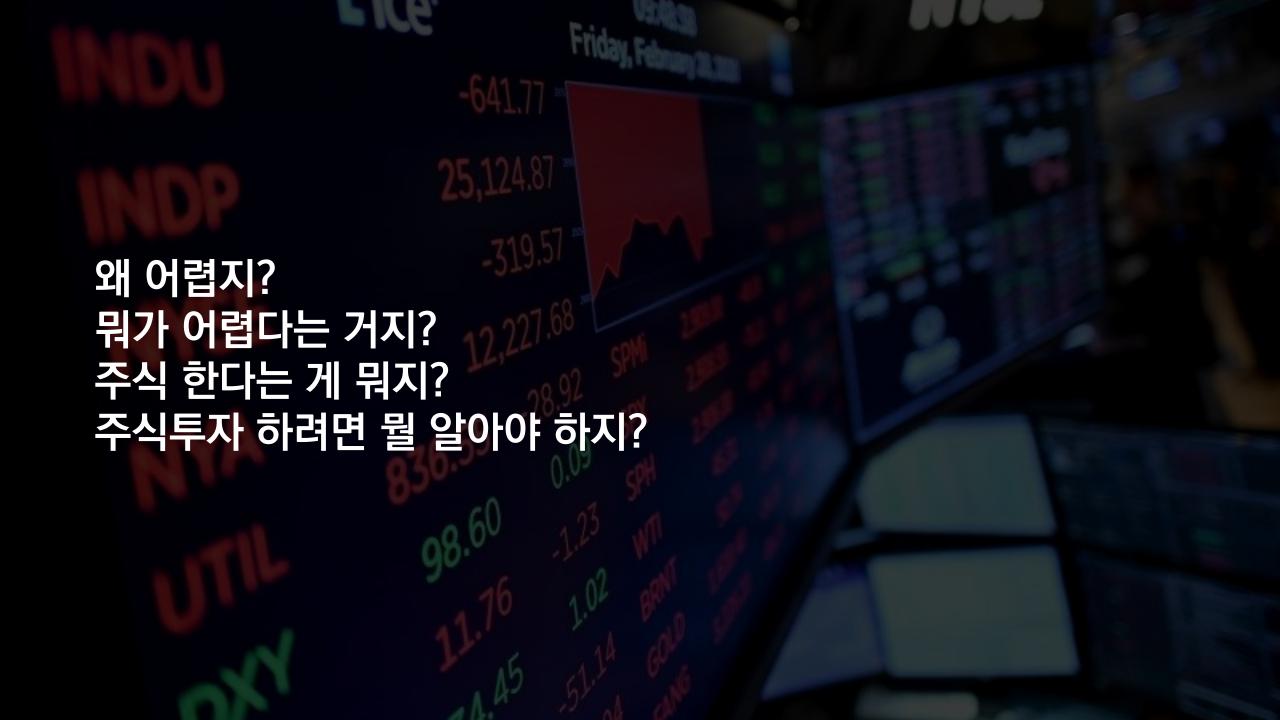




"아, 내가 불편해 하거나 어려워 하는 문제가 뭐지?"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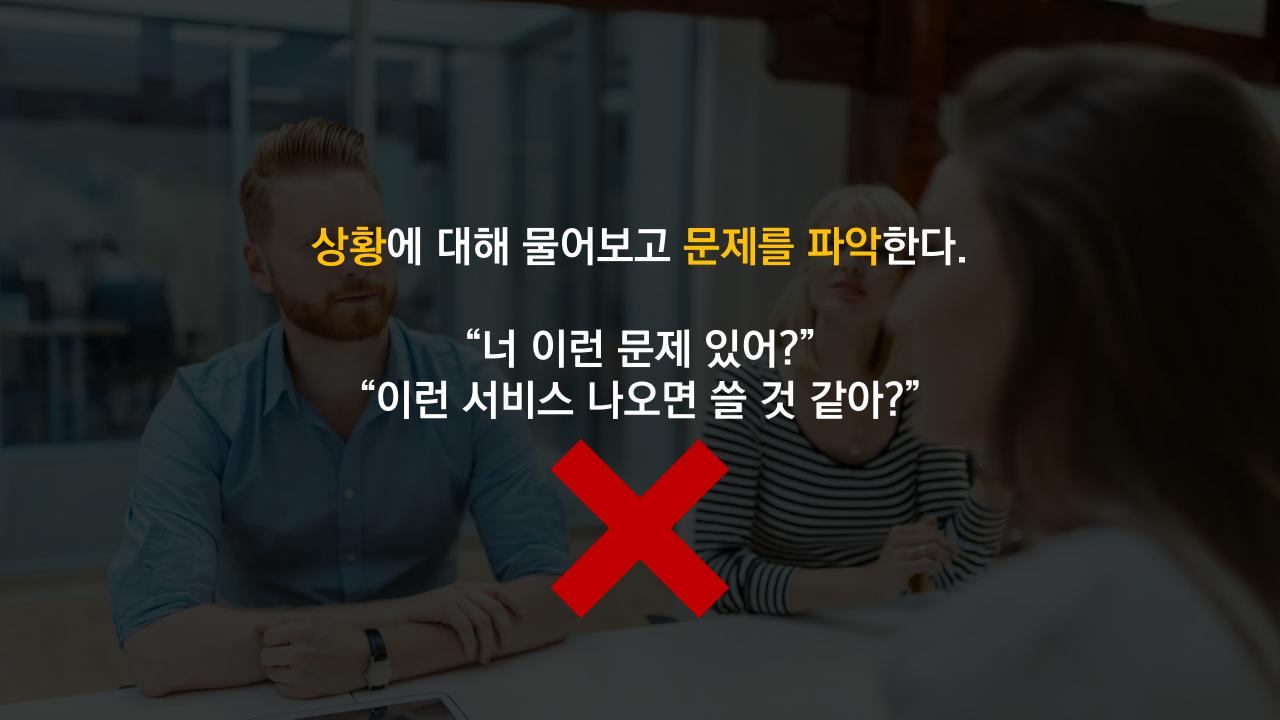








총 스무 명을 심층 인터뷰



"주식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."

이 인터뷰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?

- 1. 타겟 고객 설정
- 2. 사람들이 겪는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가?
- 3. 사람들은 어떻게 주식을 공부하는가?

주식 안 하는 사람들

확인해야 할 것 [고객에 대해서] "그대로 질문"

- 1)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? (적금/예금/보험 등)
- 2)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? (용돈 or 직접 벎)
- 3) 자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? (금액)
- 4)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 (직접적인 대답)

확인해야 할 것 [문제에 대해서] "행동을 정황으로 파악"

- 1) 사람들이 건강한 투자 습관을 가지고 싶은 니즈가 충분히 있는가? 투자근거 기록 (핵심기능)
- 2)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 (내면의 진짜 이유)
- 3)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?
- 4)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안 하는 것인가,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인가?
- 5) 투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가?

주식 하는 사람들

확인해야 할 것 [고객에 대해서] "그대로 질문"

- 1)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가? (내 소득의 n% 또는 절대금액)
- 2) 포트폴리오가 몇 개의 회사에 나눠 투자하고 있는가? (투자 종목의 개수)
- 3) 한 번 종목을 사면 얼마 기간을 생각하고 넣는가? (가치투자 or 우량주 투자 등 투자성향)
- 4) 평소에 투자 관련해서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습관이 있는지?
- 5) 투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? (투자에 대한 이미지)
- 6) 투자 시작한지 얼마나 됐는지?

확인해야 할 것 [문제에 대해서] "행동을 정황으로 파악"

- 1) 사람들이 건강한 투자 습관을 가지고 싶은 니즈가 충분히 있는가? 투자근거 기록 (핵심기능)
- 2) 사람들은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?
- 3) 사람들은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때 얼마나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는가?
- 4) 사람들은 투자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가?

한 말 그대로 작성 (순서도 중요)

- 한국 반 / 외국 반 하고 있다.
- 미니스탁이라 해서, 리스크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테슬라 사고 싶었는데 머스크가 말만 하면 너무 떨어져서 0.001주도 살 수 있어서.
- 해외주식은 수수료 너무 비싼데 미니스탁 수수료 면제 해줘서 그런 것보다 싼 편이라 접근성 쉽고, 미니스탁이 보호해주는 게 많아서.
- 재미 붙일 겸, 미니스탁이 소액이라 재밌고 감도 잡고, 이 회사 이슈들 설명도 잘 해준단 말이야. 어린이 다루는 느낌? 되게 친절해. 전문적으로 10 몇 억씩 하는 게 아니라 소익으로 공부할 겸, 재 미도 할 겸 하면 미니스탁 진짜 추천해. 동향 뉴스도 찾아볼 필요 없고. 시작은 이벤트로 들어가 는 걸로 하더라고. 증권사마다 영웅문 키움증권 되게 많이 하는데 한투가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첫 플랫폼이 한투라 익숙하긴 했어.
- 1000만원 정도 넣었어. 미니스탁 20개 넘게 넣었고, 한국은 한화솔루션, 대한항공, 삼전, 카카오 / 해외주식은 메타버스주에 엄청 몰려있는데 테슬라, 데이터독, 룰루레몬 홈트 많이 해서 나이키가 중국자본에 빌붙어서 내 돈 주긴 그래서 대항마로 집네스틱.
- 유튜브 채널 보다가 메타버스 이러이러한 데가 있더라, 그런 것들 보고 얘기 들려온다 하면 검증 됐는지 찾아보고 넣는다. 장기투자하겠다 하는 마인드라.
- 자주 보지는 않고,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본다.
- 감으로 넣는다. 여행가고 싶으면 대한항공 하고, 메타버스 유망할 것 같은 느낌 빡시게 넣고.
- 기록은 안 해. 너무 자세하게 적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있고. 적을까 생각할까까진 했는데. 재미로 하거든. 트렌드도 따라갈겸. 즐기자. 공부하자 그런 것보다는 즐기자.

인터뷰 결과 / 인사이트 도출

주식 안 하는 사람들

- 1. 시드머니 없다.
- 2. 주식에 시간 너무 쓰질 원치 않는다.
- 3. 몰라서. 뭐부터 해야 할 지도 몰라서.
- 4. 부담감, 무서움 (심리적 장벽)

주식 하는 사람들

- 1. 시간을 너무 쓰고 싶지 않다.
- 2. 정보를 얻는 방법
 - : '지인 추천', '유명한 것(우량주)', '기사, 유튜브', '감(개인의 취향)'에 의해서
- 3. 기업 재무제표, 보고서, 차트 분석까진 못 한다.
- 4. 투자 관련 기록/정리 잘 하지 않는다.

인터뷰 결과 / 인사이트 도출

주식 안 하는 사람들

- 1. 시드머니 없다.
- 2. 주식에 시간 너무 쓰질 원치 않는다.
- 3. 몰라서. 뭐부터 해야 할 지도 몰라서.
- 4. 부담감, 무서움 (심리적 장벽)
- 1) 시드머니, 어쩔 수 없는 요인
- 2)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 주식투자 자체를 시작하도록 이끄는 어려움



주식 하는 사람들

- 1. 시간을 너무 쓰고 싶지 않다.
- 2. 정보를 얻는 방법
 - : '지인 추천', '유명한 것(우량주)', '기사, 유튜브', '감(개인의 취향)'에 의해서
- 3. 기업 재무제표, 보고서, 차트 분석까진 못 한다.
- 4. 투자 관련 기록/정리 잘 하지 않는다.

인터뷰 결과 / 인사이트 도출

주식 안 하는 사람들

- 1. 시드머니 없다.
- 2. 주식에 시간 너무 쓰질 원치 않는다.
- 3. 몰라서. 뭐부터 해야 할 지도 몰라서.
- 4. 부담감, 무서움 (심리적 장벽)
- 1) 시드머니, 어쩔 수 없는 요인
- 2)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 주식투자 자체를 시작하도록 이끄는 어려움



주식 하는 사람들

- 1. 시간을 너무 쓰고 싶지 않다.
- 2. 정보를 얻는 방법
 - : '지인 추천', '유명한 것(우량주)', '기사, 유튜브', '감(개인의 취향)'에 의해서
- 3. 기업 재무제표, 보고서, 차트 분석까진 못 한다.
- 4. 투자 관련 기록/정리 잘 하지 않는다.

인터뷰 결과 / 인사이트 도출



페르소나 (타겟고객의 모습)

1 Group

2 Group

100만원 ~ 300만원

1,000만원 ~ 3,000만원

- 주식을 1회 이상 매수한
- 바쁜 20대 중반~30대 초반 대학생, 취준생,
 사회 초년생
- 투자에 많은 시간을 쏟기를 원하지 않으며 나의 공부, 취준, 직장업무가 우선이다.

- 9시에 주식 장이 열 때와 3시 반 마감 시간
 에는 학교 수업을 듣거나 일을 하고 있다.
- 장이 열 때, 닫을 때 하루에 두 번 주식 어플을 확인하고, 기사 등은 나중에 읽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보내 놓는다.

자료 조사



- 주식 유튜브 영상
- 카카오톡 주식 단타 오픈채팅
- 가치투자 네이버 카페
- 투자 기록 블로거들

- 단타 (하루에 n회 이상 매수/매도)
- 전업 투자자
- 투자를 제대로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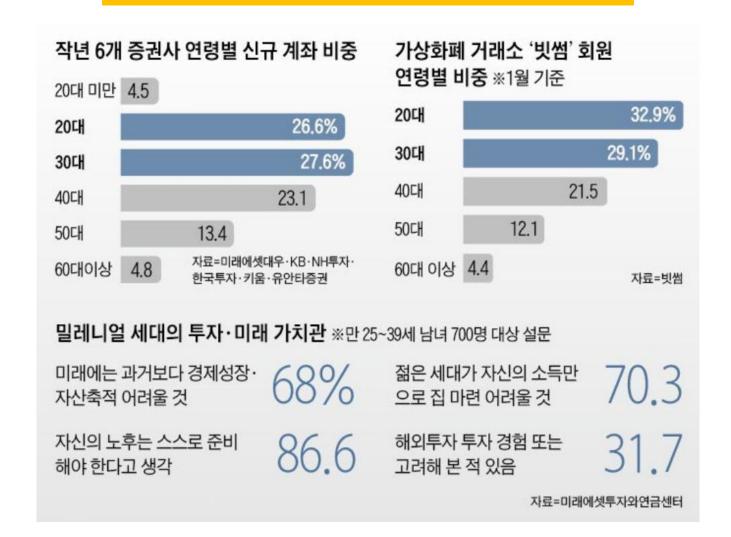
투자에 대한 에너지와 니즈 크나,

자신만의 노하우와 행동양식이 이미 고착화되어 서비스 유입 시키기 어려움.

따라서 20대 후반 - 30대 초반으로 타겟 설정

자료 조사

거시적인 현황 파악



문제 재정의

타겟 고객은 현생이 바빠 시간이 없다.

투자에 많은 시간을 쏟기는 부담스러우나

유튜브, 기사 / 지인 추천 / 직감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더 잘하고 싶은 욕구는 있다.

투자로 더 수익을 내고 싶지만,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지는 못한다.

문제 재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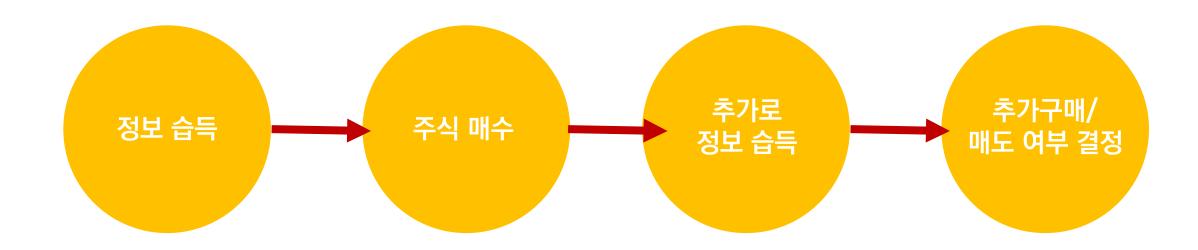
투자로 더 수익을 내고 싶지만,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지는 못한다.



시간이 부족한 20대 중후반, 30대 초반의 학생, 취준생, 사회초년생들은 시간을 아주 많이 쓰지 않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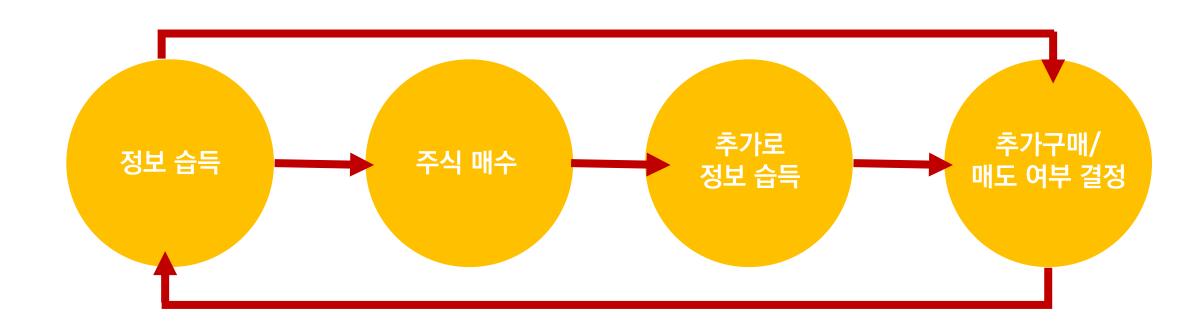
문제 재정의

투자로 더 수익을 내고 싶지만,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지는 못한다.



문제 재정의

투자로 더 수익을 내고 싶지만,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지는 못한다.



랜딩페이지 테스트







아이디어/리소스/돈이 있다면 3~5개 아이디어로 동일 타겟 인스타그램 광고 태워서 더 많이 나온 아이디어로 개발 착수

정리



개발에 들어가기 전에,

이게 "될 놈"인지 작은 실험들을 통해 선별해서 개발하는 것

이를 위해서 고객 인터뷰를 통해

"고객"과 "문제"를 정의하자.

초기 투자자가 창업자로부터 듣고 싶은 스토리의 핵심은.

우리는 이 '문제'를 미치도록 풀고 싶다. 정말 '미치도록' 풀고 싶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믿는다.

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'이런 역량'이 필요한데, 우리 팀을 봐라.

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팀이다.

거기에다가 우리 팀은 과거에 '손발을 맞춰본 경험'이 있다.

돈만 주면 '다음과 같이' 우리가 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.